

##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세대 내 이동 연구: 성 및 출생 코호트 비교

계 봉 오\*

이 연구는 노동패널 1-23차 자료를 활용해서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 패턴을 성 및 출생코호트별로 비교함으로써,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연령 집단 간 차이를 세대 간 차이로 설명해 온 경향이 있는데, 이 연구의 분석은 출생 코호트들의 연령패턴의 직접적인 비교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의 상층 및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비중은 최근 출생코호트에 오면서 점차 증가하다가 198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감소했다.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지연이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생애과정 전체를 통해서 지속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여성의 경우에는 상층과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코호트/연령대의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의 상층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무직자의 비중 또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1960년대생들의 경제적 자원의 독과점 현상은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기준으로 삼을 때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주요용어 : 결합노동시장 지위, 세대 내 지위이동, 세대 간 불평등, 성별 차이

### 1.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세대 내 이동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대 간 불평등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이른바 '86' 세대가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에게 정치권력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적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공적 연금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비롯한 세대회계(generational accounting)에 대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풍부한 담론적 논의와 비교할 때,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또한 세대 간 불평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소득이나 노동시장 지위의 연령패턴의 시계열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창환·김태호, 2020; 이철승, 2019). 물론 이러한 분석전략은 장기간 축적된 패널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이

\* 국민대 사회학과 부교수 (bkye@kookmin.ac.kr)

존재하면 출생 코호트들의 생애과정에 이질성이 존재하게 되며, 이는 시기별 연령패턴의 변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불평등은 각 세대의 생애과정을 차이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직관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Ryder 1965; Glenn, 2005).

이 연구는 지난 23년(1998 - 2020) 동안 축적되어 온 한국노동패널(이하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결합노동시장 지위(이철승, 2019a)의 연령패턴을 성 및 출생코호트별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서 생애과정을 통한 노동시장 지위 변화의 세대 간 차이, 나아가 한국사회의 세대 간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세대 간 불평등 혹은 갈등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학적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철승, 2019a; 전상진, 2018). 경제적 지위, 정치권력 등 자원 배분의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왔으며(김창환·김태호, 2020; 신광영, 2009; 이철승, 2019b), ‘네트워크 위계’를 비롯한 세대 간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보다 정교한 개념적 도구도 제시되었다(이철승, 2019a). 따라서,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 연구의 빈곤’(전상진, 2004)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전상진(2018)은 세대 간 갈등을 세대 전쟁과 세대 투쟁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세대 전쟁은 자원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의미하는 반면, 세대 투쟁은 세대 정체성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을 의미한다. 서구사회의 세대 전쟁론에서는 풍족한 연금을 받는 노인세대에 대한 비난이 내러티브의 핵심을 이루는 반면(Thomson 1989), 한국에서는 높은 노인빈곤율 때문에 세대 전쟁론의 비난 대상이 노인이 아니라 ‘기성세대’라 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는 세대 전쟁론에서 주목하는 주제인데, 청년층의 제한된 고용기회를 ‘기성세대’의 탐욕의 결과로 묘사하는 논의가 주를 이룬다. ‘기성세대’의 고용기회의 독점은 자연스럽게 세대 간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로 연결된다. 이철승(2019a)은 ‘결합노동시장 지위’ 개념을 사용해서 1960년대생들이 다른 출생코호트보다 상층 노동시장 지위를 보다 많이 그리고 오래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20-30대들의 분노는 비슷한 논리에 근거해서 ‘기성세대’의 자산 독점 및 세대 간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전상진은 이러한 논의가 계급 재생산의 문제를 세대 갈등으로 치환하는 잘못을 저지른다고 비판하는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계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 전쟁론은 특정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회제도를 조작한다는 ‘음모론적’ 사고 방식을 전제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특정 세대 혹은 출생코호트만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기는 매우 어렵다. 세대 간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도 존재하지만(이철승, 2019a),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세대 간 불평등보다 세대 내 불평등이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김창환·김태호, 2020; 신광영,

2009). 또한, 자산불평등은 자산형성에서 세대 간 전이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세대 간 불평등의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둘째, 세대 간 불평등 연구는 대부분 성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런데, 성별에 뚜렷이 구별되는 생애과정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경험의 세대 간 차이가 성별로 이질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이 여전히 강한 M자형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은기수, 2018),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 패턴에 출생 코호트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세대 내 계급 이동 패턴에 뚜렷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Kye et al., 2021), 이는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 패턴이 성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성별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세대 간 불평등 연구는 대부분 반복 횡단면 자료(repeated cross-sectional data) 분석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은 연령 집단 간에 존재하는 차이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20대와 50대의 소득격차가 2000년보다 2020년에 증가했다면 이를 세대 간 불평등의 증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적절한 자료의 부재하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접근이 세대 간 불평등을 적절하게 보여주는 위해서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출생 코호트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 발견되는 연령 집단 간 차이가 아니라 출생코호트의 생애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충분한 자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출생코호트의 연령 패턴의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출생코호트의 연령 패턴의 차이는 출생 코호트 간 차이뿐만 아니라 시기의 차이 또한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령-기간-코호트(Age-Period-Cohort, APC)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책은 예전부터 존재했고(Mason and Fienberg, 1985) 2000년대 들어 보다 정교화되었고(Yang and Land, 2008; Yang et al., 2008), APC 모형은 출산율 변화(Kye, 2012), 맞벌이 부부 비중 변화(김수정, 2015), 계층귀속감 및 상향이동의 식 변화(이왕원·김문조·최을, 2016) 등 한국의 사회변화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결과 또한 활발하게 제시되었는데(Luo, 2013; Luo and Hodges, 2020),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전통적인 APC 모형이 모델 적합을 위한 자의적인 제한(arbitrary constraints)를 부과한다는 것이며 최근의 정교화 또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출생코호트 간 연령패턴의 비교 역시 출생코호트 혹은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 코호트의 연령 패턴의 비교는 세대 간 차이와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해야 하는 작업이다.

### III. 자료와 방법론

#### 1. 자료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23차 자료(1998 - 2020)를 활용한다. 각 조사연도의 일자리 정보를 활용해서 2절에서 보다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측정한다. 분석대상은 출생코호트 비교를 위해서 1940 - 1999년 출생자로 하고, 10년 단위 출생코호트들(1940-49, 1950-59, ... 1990-99)을 비교한다.

#### 2. 방법론

##### 가.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측정

이 연구는 결합노동시장 지위 개념을 활용해서 생애과정을 통한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합노동시장 지위 개념은 이철승(2019)이 제안한 개념으로 1) 기업조직 규모(대기업 여부), 2)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3) 노조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개념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위의 세 가지 조건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의 조합에 따르면 총 8개의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철승(2019)은 이를 <표 1>에 제시된 것 같이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위치와 보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한 개념들이며, 생애과정을 통한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 <표 1> 여기쯤

이 연구는 노동패널 1-23차 자료(1998 - 2020년)를 활용하여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 패턴이 출생 코호트에 따라 비교하고자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세대 간 불평등 혹은 차이는 생애과정의 차이를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특정 시점에서 관찰된 연령 집단 간의 차이는 출생 코호트 혹은 세대 간에 존재하는 차이뿐만 아니라 연령 효과를 반영한다. 물론, 연령집단 간 차이의 변화가 세대 간 불평등의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는 하지만, 세대 혹은 출생 코호트 간 차이는 기본적으로 출생 코호트의 생애과정의 차이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결합노동시장 지위 변화의 연령 패턴을 출생 코호트별로 비교함으로써 세대 간 불평등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표 1>에 제시된 이철승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구분은 노동시장 지위의 세대 내 이동 패턴의 세대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해 주지만, 결합노동시장 지위 개념은 임금근로자에

계만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구분은 세대 내 이동을 연구하기 위한 틀로서는 포괄성이 떨어진다. 개인들은 생애과정을 통해서 임금근로자 이외의 상태에 처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직업이 없는 경우나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결합노동시장 지위 개념은 이러한 상태를 포괄할 수 없다. 또한, 비임금근로자 상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성별 비교를 위해서 이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세대 내 이동 패턴의 차이는 고용과 비고용 상태 간의 이행에서는 확연히 드러나는 반면, 고용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는다(Kye et al., 20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표 1>에 제시한 결합노동시장 지위(상, 중, 하)와 더불어 무직과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를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세대 내 이동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편의상 아래에서는 결합노동시장은 임금근로자 상층/중층/하층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무직자를 모두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 나. 출생코호트 비교

이 연구는 1940 - 99년 출생자들의 20-69세 결합노동시장 지위 변화를 분석한다. 노동패널 1-23차(1998 - 2020)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출생 코호트에 따라 관찰된 연령대가 다르다. 예를 들어, 1945년생은 53-75세 기간 동안 관찰된 반면, 1989년생은 19-31세 기간 동안 관찰되었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23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수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코호트들의 생애과정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며 제한된 수준에서 인접한 출생 코호트의 생애과정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2>는 10년 단위 출생 코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노동패널 1-23차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대략적인 연령대를 보여준다. 물론, 이와 같은 구분은 다소 자의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1950년생은 노동패널 1차조사 당시(1998년)에 48세였기 때문에 이들의 40대의 생애과정의 대부분은 노동패널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1959년생의 60대 생애과정 또한 대부분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분은 10년 단위 출생코호트들의 경험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도록 한다.

### <표 2> 여기쯤

<표 2>는 특정 연령대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코호트들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각 코호트의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긴 관찰기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20년 동안의 경로를 비교하려고 하면 <표 3>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출생 코호트 비교를 할 수 있다.

### <표 3> 여기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특정 출생 코호트들의 특정 연령대 생애과정을 인접 출생코호트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많은 논의들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86' 세대가 상층 지위를 독점하고 있다면, 50년대생들이나 70년대생들과 비교할 때 60년대생들이 상층 지위를 보다 많이 그리고 오래 차지하는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료 수집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애과정을 통한 비교는 가능하지 않지만, 인접한 출생 코호트들 간의 비교는 가능하다. 즉, 1960년대생들의 40-50대의 경험은 1950년대생들과 비교할 수 있으며, 이들의 30-40대의 경험은 1970년대생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출생 코호트의 노동시장 경험이 생애과정에 따라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세대 내 결합노동시장 지위 이동의 세대 간 불평등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틀을 활용해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경험적 분석을 활용하도록 한다.

- 1) 성 및 출생 코호트별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생애과정에 따른 변화에 대한 기술적 분석
- 2)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Random-effects 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한 결합노동시장 지위 연령 패턴분석

우선,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구성비를 성 및 출생 코호트별로 비교한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무직과 자영업/가족종사자의 범주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성 및 출생 코호트 간에 존재하는 노동시장 지위의 변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코호트 차이는 코호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혼동요인 중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random-effects ordered logit model)을 적용해서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출생코호트 간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 패턴 차이를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무직과 자영업/가족종사자 범주는 제외하고 임금근로자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순위(상층, 중층, 하층)를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으로 추정된 결과를 제시한다. 관찰 기간 중 임금근로자였던 시점만이 분석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이 분석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자영업자/가족종사자와 무직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 연구는 생애과정을 통한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변화가 출생코호트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때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서열적 의미를 갖는다. 앞서 논의했듯이 출생코호트의 생애과정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시기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직자와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서열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다. 물론 확률효과 다항로짓 모형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생애과정을 통한 서열적 지위 변화의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에서는 확률효과 서열로짓 모형의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 IV. 분석결과

### 1.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그림 1]은 1940-99년 출생 코호트들이 1998-2020년 기간 동안 경험한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30세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1998-2020년 기간 동안 30세였던 있는 출생코호트(1958-90년 출생)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의 평균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분석대상을 1940-99년 출생 코호트로 제한하기 때문에 연령별 추정에 포함되는 출생 코호트의 수는 연령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림 1] - [그림 6]에 제시하는 결과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추정되었다. 분석결과는 노동시장결합 지위 분포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잘 보여준다. 상층지위의 비중은 30-40대까지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중층 지위는 20-30대에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하층 지위는 30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20대에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30대에 증가하며 남성은 전체의 30%, 여성은 20% 정도를 이후에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직자의 비중은 남성은 40대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에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은 20대 중반까지 감소하다가 출산이 집중되는 30대 초반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후 50대까지 감소하다가 이후에 증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상층과 중층의 비중은 여성보다 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층의 비율은 비슷하고,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남성이, 무직자의 비중은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여기쯤

### 2.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시기별 비교: 2000, 2010, 2020년

[그림 2]는 세 시점(2000, 2010, 2020년)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 모두 상층과 중층 지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50대의 상층 및 중층 지위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층의 비중 또한 남녀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패턴은 여성에게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남녀 모두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40대 이상 남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령별 무직 비율은 남녀 모두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변화 패턴을 요약하면, 남녀 모두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는 모든 결합노동시장 지위에서 관찰되고 있다.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의 감소와 임금근로자 비중의 증가는 세대 간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비교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는 이철승(2019a)이 제시한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결정 기준(대기업, 노조, 정규직 여부)은 임금근로자에게 해

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보면 세대 간 불평등은 결국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생애과정을 통한 변화의 세대 간 차이를 의미하는데, 임금근로자가 아닌 상태에서 보내는 생애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출생 코호트별로 다르게 나타나면 임금근로자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대 간 불평등을 논의하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림 2]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상태의 비중이 시기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코호트 간에도 차이가 존재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자영업자/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한 경향이 주는 함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여기쯤

### 3.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출생 코호트 비교: 출생 코호트

[그림 3]은 남성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출생 코호트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40-50대의 경우는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을 비교할 수 있다([그림 3]의 첫 번째 그래프). 우선, 1960년대생의 무직자와 자영업/가족종사자의 비중이 40-50대 전체에 걸쳐서 1950년대생보다 상당히 감소했다. 이 둘을 합한 비율이 1950년대생의 경우에는 40-50대 동안 50% 수준에서 유지되었는데, 1960년대생들의 경우에는 40%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층 및 중층의 비중은 증가했다. 한편 하층의 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두 출생 코호트 모두 40-50대에 연령이 올라갈수록 상층과 중층의 비중은 감소하고 하층의 비중은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40-50대 이후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부정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그림 3] 여기쯤

30-40대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을 비교할 수 있다([그림 3]의 두 번째 그래프). 무직자의 비율은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 반면, 자영업자의 비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생들의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1960년대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1970년대생들의 상층의 비중은 1960년대생들보다 약간 증가한 반면, 중층의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하층의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1970년대생의 30-40대 결합노동시장 분포는 1960년대생들보다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자영업/가족종사자의 지위가 임금노동자보다 평균적으로 낮다고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해석이다. 자영업/가족종사자 범주는 이질적인 상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자영업자들의 불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가정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한 가지 흥미있는 지점은 이러한 분석결과가 이철승의 선행연구(2019a)에 갖는 함의이다. 이철승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생들은 이전 이후 세대에 비해서 상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차지/유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직자 및 자영업/가족종사자의 비중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의 비교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3]은 전체 출생코호트에서 상층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1970년대생들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런데, 1970년대생들의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960년대생보다 높기 때문에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층의 비중은 정체 혹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출생코호트 비교에서 임금근로자 이외의 집단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20-30대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는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을 비교할 수 있다([그림 3]의 세 번째 그래프). 무직자의 비중에는 두 출생코호트 간에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영업/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980년대생에서 다소 감소했다. 상층의 비중은 20대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30대에는 소폭 감소했고, 중층과 하층의 비중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림 4]는 여성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출생 코호트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의 무직 비중은 훨씬 높고 자영업/가족종사자 비중은 낮다. 40-50대의 분포를 보면([그림 4]의 첫 번째 그래프), 1960년대생의 상층의 비중은 1950년대생보다 다소 증가했으며, 중층 또한 증가했다. 흥미롭게도 하층의 비중 또한 증가했다. 이는 1960년대생 여성들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1950년대생들보다 크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영업/가족종사자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음을 고려할 때, 1960년대생 여성들의 많은 수가 하층 임금근로자로 40-50대를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경력단절 후 하층 지위로 노동시장에 복귀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4] 여기쯤

30-40대의 분포를 보면([그림 4]의 두 번째 그래프), 1970년대생 여성들이 1960년대생들보다 상층 노동시장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층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하층의 비율을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영업/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에 무직자의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20-30대의 분포를 보면([그림 4]의 셋 번째 그래프), 1980년대생 여성들과 1970년대생 여성들의 결합노동시장 분포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연령별 패턴에 어느 정도 차이는 존재하는데, 20대 초반 무직자의 비중 감소가 1980년대생들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30대 후반의 경우 1970년대생들은 무직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1980년대생들은 무직자의 비중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된 결과를 통해서 출생코호트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패턴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상층 및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비중이 최근 출생코호트들에 오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증가 추세가 1980년대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이들이 노동시장에 보다 늦게 진입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추세가 40대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여성의 경우에는 상층과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코호트/연령대의 남성과 비교할 때, 상층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무직자의 비중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연령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는 최근 출생코호트로 오면서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한편, 1960년대생들의 상층 노동시장 지위 독점 현상은 이러한 분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여성의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오면서 점차 향상되는 추세이며, 남성의 경우에는 1970년대생들까지는 향상되다가 1980년대생에서는 다소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패턴은 1980년대생들의 늦은 노동시장 진입의 효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생애과정 전체를 통해서 1970년대생들보다 하락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 4. 연령별 이행률의 출생코호트 비교

[그림 1] - [그림 4]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은 물론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생애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지만, 종단자료의 속성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상태 간 이행(inter-state transition)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에 제시한 분석은 5개의 범주(상층/중층/하층 임금근로자, 자영업자/가족종사자, 무직)을 활용했는데, 5개 범주 간의 가능한 이행은 총 20 종류이다. 주어진 자료의 사례 수를 고려할 때, 연령별 이행의 모든 경우수를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세 층의 임금근로자를 하나로 묶은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즉, 임금근로자, 자영업자/가족종사자, 무직이라는 세 범주 간의 연간 이행률(annual transition rate = # of events/person-years lived) 추정치를 코호트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그림 5]는 남성의 연령별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40-50대 남성의 이행률은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을 비교할 수 있는데([그림 5]의 첫 번째 그래프), 분석결과는 두 코호트 간에 연령별 이행률 패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무직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이행은 두 코호트 모두 40-50대를 거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50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에서 무직으로의 이행은 50대 초반까지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50대 후반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생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족종사자 간의 이행은 40-50대 동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 [그림 5] 여기쯤

30-40대의 이행률은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을 비교할 수 있는데([그림 5]의 두 번째 그래프), 앞서 제시한 1950년대생과 1960년대의 비교와 마찬가지로 출생코호트 간에 뚜렷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다. 무직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이행률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1960년대생의 31세 이행률은 매우 높고 1970년대생의 49세 이행률은 매우 낮은데, 이는 이 이들 코호트의 해당 연령의 사례수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자/가족종사자 혹은 무직자로의 이행은 30-40대에 걸쳐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영업자/가족종사자에서 임금

근로자로의 이행은 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20-30대의 이행률은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을 비교할 수 있는데([그림 5]의 세 번째 그래프), 이 역시 두 코호트 간의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6]은 여성의 연령별 이행률을 보여주고 있다. 40-50대 여성의 이행률은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을 비교할 수 있는데([그림 6]의 첫 번째 그래프), 분석결과는 두 코호트의 연령별 이행률에 구분됨을 보여준다. 1950년대생의 경우에는 40대 중반 이후에는 임금근로자에서 무직으로의 이행이 반대의 이행보다 높게 나타나고 50대 이후 그 차이가 다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반면, 1960년대생의 경우에는 50대 후반 이전까지는 무직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이행률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 간의 이행 패턴을 보면 1950년대생은 둘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1960년대생은 임금근로자로의 이행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출생코호트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1960년대생이 1950년대생 보다 40-50대 동안 임금근로자로 이행하는 경우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여기쯤

30-40대의 이행률은 1960년대생과 1970년대생을 비교할 수 있는데([그림 5]의 두 번째 그래프), 남성과 마찬가지로 출생코호트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무직→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무직 이행률은 둘 다 연 15% 수준에서 30-40대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자영업/가족종사자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이행은 이보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반대의 이행은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20-30대의 이행률은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을 비교할 수 있는데([그림 5]의 세 번째 그래프), 이 역시 두 코호트 간의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림 5]와 [그림 6]의 결과는 노동시장 결합지위 간의 연령별 이행 패턴에 성별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임금근로자로의 이행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임금근로자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는 뚜렷한 출생코호트 간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 여성은 1950년대생과 1960년대생의 40-50대의 이행률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에 태어난 여성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자로 이행할 가능성이 1950년대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률 차이 때문에 [그림 4]에 제시한 두 출생코호트 간의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5. 확률효과 순서로짓(Random-effects ordered logit) 분석

<표 4> - <표 11>은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이 분석은 임금근로자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한다. <표 4>와 <표 5>는 1940-1999년 출생자 모두를 포함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은 연령, 연령 제곱, 출생코호트를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

형이고, 모형 2는 교육수준을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 1은 출생코호트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평균적인 차이를 보여주며, 모형 2는 이러한 출생코호트 간 차이가 교육수준의 변화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 보여준다. 출생코호트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패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출생코호트와 연령 및 연령제곱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것고려할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출생코호트의 전반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한다.

#### <표 4>과 <표 5> 여기쯤

남성의 경우(<표 4>) 출생코호트가 차이가 전반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생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1940년대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70년대생까지는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상승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생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다른 출생코호트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코호트들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한편 교육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는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의 향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표 5>) 1970년생과 1980년대생의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이전 세대보다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는 이러한 상승이 사라지는데, 이는 1970-80년대생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 상승이 교육수준 향상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표 4>과 <표 5>에 제시된 결과는 서로 연령대가 매칭되지 않는 코호트들을 비교한다는 중요한 약점을 지닌다. 예를 들어, 1990년대생들은 20대의 자료만 포함되어 있으며, 1940년대생들은 50-60대 자료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코호트들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쌍들을 비교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표 4>에 제시된 1990년대생들의 낮은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자료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의미있는 코호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연령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코호트들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출생코호트 전반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약점은 있지만, 분석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표 6>과 <표 7>은 1950년대생과 1960년생의 40-5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출생코호트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남성의 경우 1960년대생의 40-5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1950년대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는 1960년대생들의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1950년대생들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교육수준의 향상을 반영한다.

#### <표 6>과 <표 7> 여기쯤

<표 8>과 <표 9>는 1960년대생과 1970년생의 30-4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970년대생들의 30-4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1960년대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여성은 유의미하다. 교육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는 차이가 역전되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코호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교육수준이 같은 1960년대생 여성과 1970년대생 여성의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6> - <표 9>의 분석결과는 1960년대생들이 상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다른 출생코호트보다 많이 그리고 오래 점유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대생들의 30-4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1960년대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과 <표 9> 여기쯤

<표 10>과 <표 11>은 1970년대생과 1980년생의 20-3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980년대생들의 20-3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1970년대생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은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여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은 통제한 이후에는 이러한 남녀 모두 그 차이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이러한 차이는 1980년대생 남성들의 늦은 노동 진입을 반영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40대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표 10>과 <표 11> 여기쯤

<표 4> - <표 11>에 제시된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의 분석결과는 남성의 경우 1970년대생들의 20-3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1980년대생들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면 출생코호트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에는 1970년대생들의 30-4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1960년대생보다 높은 것을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출생코호트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1960년대생들이 상층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많이 그리고 오래 차지한다는 주장(이철승, 2019a)을 지지하지 않는 패턴이다. 분석결과는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출생코호트 간 변화에 뚜렷한 패턴이 없음을 보여주며, 1970년대생들이 다른 코호트들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1970년대생 남성들의 20-3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가 1980년대보다 높다는 분석결과는 생애 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는 현상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의 확대됨에 따라 노동시장 시기가 늦어진 것이 1970년대생들과 1980년대생들의 20-30대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교육수준에 따라 결합노동시장 지위 변화의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출생코호트 간의 차이가 40대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V. 요약 및 함의

이 연구는 노동패널 1-23차 자료를 분석해서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연령 패턴을 성 및 출생코호트별로 비교했다. 이 연구는 코호트의 연령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세대 간 차이 및 불평등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료의 제약 때문에 다른 시점에서 발견되는 연령 집단 간 차이를 세대 간 차이로 설명해 온 경향이 있는데, 이 연구의 분석은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코호트들의 연령패턴을 직접적으로 비교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의 상층 및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비중이 최근 출생코호트들에 오면서 점차 증가하다가 198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감소했다.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의 지연이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생애과정 전체를 통해서 지속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여성의 경우에는 상층과 중층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동일한 코호트/연령대의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의 상층 결합노동시장 지위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무직자의 비중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1960년대생들의 경제적 자원의 독과점 현상은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기준으로 삼을 때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합노동시장 지위는 남녀 모두 최근 출생코호트로 오면서 향상되는 추세인데, 1960년대 출생코호트는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는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난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노동시장 전망이 이전 출생코호트보다 악화되었는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들의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합노동시장 지위를 기준으로 할 때, '86' 세대의 상층 노동시장 지위 독과점 현상을 존재한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이들의 정치적 권력 독과점 현상(이철승, 2019a; 2019b)과는 대조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창환·김태호. (2020). 세대 불평등은 증가하였는가? 세대 내, 세대 간 불평등 변화 요인 분석, 1999~2019. <한국사회학>, 54(4), 161-205.
- 은기수. (2018).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경력단절. <한국인구학>, 41(2), 117 - 150.
- 이왕원, 김문조, 최율. (2016). 한국사회의 계층귀속감과 상향이동의식 변화. <한국사회학>, 50(5), 47-284.
- 이철승. (2019a). <불평등의 세대>. 문학과지성사.
- 이철승. (2019b). 세대, 계급, 위계. <한국사회학>, 53(1), 1-48.
- 전상진. (2004).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38(5), 31-52.
- 전상진. (2018).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 Glenn, N. D. (2005). *Cohort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Kye, B. (2012). Cohort Effects or Period Effects? Fertility Decline in South Korea in the Twentieth Centur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1:387-415
- Kye, B., Hwang, S., Choi, Y., and Kim, J. (2021). Intragenerational Occupational Mobility of South Korea, 1998 - 2017: Implications of the Gendered Life Course Approaches for Mobility and Inequality Studies. unpublished manuscript.
- Luo, L. 2013a. "Assessing Validity and Application Scope of the Intrinsic Estimator Approach to the Age-Period-Cohort Problem." *Demography* 50(6): 1945 - 67.
- Luo, L. and Hodges, J. (2020). Constraints in Random Age-Period-Cohort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50(1), 276 - 317.
- Mason, W. M., and Fienberg, S. 1985. "Introduction: Beyond the Identification Problem." Pp. 1 - in *Cohort Analysis in Social Research* New York: Springer.
- Ryder, N. (196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6), 843 - 861.
- Thomson, D. (1989). *Selfish Generations: How Welfare States Grow Old*. The White Horse Press
- Yang, Y., and Land, K. 2008. "Age - period - cohort Analysis of Repeated Cross-Section Surveys: Fixed or Random Effect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6(3):297 - 326.
- Yang, Y., Schulhofer-Wohl, S., Fu, W. J. and Land, K. C.. 2008. "The Intrinsic Estimator for Age-Period-Cohort Analysis: What It Is and How to Use I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3(6):1697 - 736.

<표 1> 결합노동시장 지위 구분

기업조직 규모	고용형태	노조 존재	결합노동시장 지위
대기업	정규직	노조 있음	상
대기업	정규직	노조 없음	상
대기업	비정규직	노조 있음	중
대기업	비정규직	노조 없음	중
대기업 아님	정규직	노조 있음	상
대기업 아님	정규직	노조 없음	중
대기업 아님	비정규직	노조 있음	하
대기업 아님	비정규직	노조 없음	하

출처: 이철승 (2019, p.98, 그림 2-1)

<표 2> 출생 코호트에 따른 관측연령대 (노동패널 1-23차 자료 기준)

출생 코호트	관측 연령대 (20세 이후)
1940-49년생	50-69세
1950-59년생	40-69세
1960-69년생	30-59세
1970-70년생	20-49세
1980-89년생	20-39세
1990-99년생	20-29세

<표 3> 동일한 연령대에서의 변화 패턴을 비교할 수 있는 출생 코호트

관측연령대	출생 코호트
40-50대	1950-59, 1960-69
30-40대	1960-69, 1970-79
20-30대	1970-79, 1980-89



<표 4>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 분석결과 (전체 표본, 남성)

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연령	0.358	0.010	1.431	0.322	0.010	1.380
연령 제곱	-0.005	0.000	0.995	-0.005	0.000	0.996
출생코호트						
1940-49	-	-	-	-	-	-
1950-59	-0.252	0.176	0.777	-0.625	0.167	0.535
1960-69	0.240	0.170	1.271	-0.827	0.166	0.437
1970-79	0.305	0.170	1.357	-1.242	0.170	0.289
1980-89	0.147	0.178	1.159	-1.655	0.180	0.191
1990-99	-1.242	0.216	0.289	-2.814	0.215	0.060
교육수준						
고졸 미만	-	-	-	-	-	-
고졸	-	-	-	1.630	0.116	5.105
대학교육	-	-	-	2.343	0.128	10.407
대졸 이상	-	-	-	3.759	0.124	42.888
$u^2$	11.014	0.250	-	9.534	0.218	-

사례수 = 69,686 (9,789 명)

<표 5>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 분석결과 (전체 표본, 여성)

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연령	0.120	0.010	1.128	0.093	0.010	1.097
연령 제곱	-0.002	0.000	0.998	-0.002	0.000	0.998
출생코호트						
1940-49	-	-	-	-	-	-
1950-59	-0.219	0.190	0.804	-0.457	0.186	0.633
1960-69	-0.101	0.187	0.904	-0.951	0.194	0.386
1970-79	0.603	0.189	1.828	-0.829	0.204	0.437
1980-89	0.790	0.196	2.203	-0.855	0.213	0.425
1990-99	0.279	0.214	1.322	-1.428	0.230	0.240
교육수준						
고졸 미만	-	-	-	-	-	-
고졸	-	-	-	1.090	0.114	2.974
대학교육	-	-	-	1.459	0.128	4.301
대졸 이상	-	-	-	2.564	0.128	12.988
$u^2$	7.491	0.202	-	6.964	0.189	-

사례수 = 47,334(8,133 명)

&lt;표 6&gt; 연령대별 코호트 비교 (40-50대),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 (남성)

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연령	0.358	0.074	1.430	0.351	0.073	1.421
연령 제곱	-0.004	0.001	0.996	-0.004	0.001	0.996
출생코호트						
1950-59	-	-	-	-	-	-
1960-69	0.248	0.177	1.281	-0.527	0.167	0.590
교육수준						
고졸 미만	-	-	-	-	-	-
고졸	-	-	-	2.010	0.205	7.464
대학교육	-	-	-	3.461	0.270	31.842
대졸 이상	-	-	-	4.344	0.232	76.980
$u^2$	18.425	0.799	-	15.416	0.656	-

사례수 = 21,934 (2,969 명)

&lt;표 7&gt; 연령대별 코호트 비교 (40-50대),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 (여성)

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연령	0.337	0.084	1.400	0.311	0.084	1.364
연령 제곱	-0.004	0.001	0.996	-0.004	0.001	0.996
출생코호트						
1950-59	-	-	-	-	-	-
1960-69	-0.139	0.143	0.870	-0.737	0.146	0.478
교육수준						
고졸 미만	-	-	-	-	-	-
고졸	-	-	-	0.951	0.151	2.589
대학교육	-	-	-	2.205	0.230	9.068
대졸 이상	-	-	-	2.839	0.214	17.103
$u^2$	8.973	0.444	-	7.820	0.390	-

사례수 = 15,175(2,384 명)

<표 8> 연령대별 코호트 비교 (30-40대),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 (남성)

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연령	-0.091	0.049	0.913	-0.117	0.049	0.889
연령 제곱	0.001	0.001	1.001	0.001	0.001	1.001
출생코호트						
1960-69	-	-	-	-	-	-
1970-79	0.181	0.126	1.198	-0.415	0.119	0.661
교육수준						
고졸 미만	-	-	-	-	-	-
고졸	-	-	-	1.847	0.218	6.341
대학교육	-	-	-	3.448	0.236	31.442
대졸 이상	-	-	-	4.280	0.224	72.241
$u^2$	13.841	0.471	-	11.445	0.390	-

사례수 = 31,492 (4,179 명)

<표 9> 연령대별 코호트 비교 (30-40대),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 (여성)

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연령	-0.223	0.063	0.800	-0.211	0.062	0.810
연령 제곱	0.002	0.001	1.002	0.002	0.001	1.002
출생코호트						
1960-69	-	-	-	-	-	-
1970-79	0.629	0.134	1.875	-0.139	0.136	0.870
교육수준						
고졸 미만	-	-	-	-	-	-
고졸	-	-	-	0.998	0.209	2.712
대학교육	-	-	-	2.302	0.237	9.991
대졸 이상	-	-	-	2.954	0.232	19.177
$u^2$	10.377	0.450	-	9.046	0.395	-

사례수 = 17,671(3,054 명)

&lt;표 10&gt; 연령대별 코호트 비교 (20-30대),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 (남성)

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연령	0.783	0.054	2.188	0.625	0.054	1.868
연령 제곱	-0.012	0.001	0.988	-0.009	0.001	0.991
출생코호트						
1970-79	-	-	-	-	-	-
1980-89	-0.256	0.101	0.774	-0.473	0.098	0.623
교육수준						
고졸 미만	-	-	-	-	-	-
고졸	-	-	-	1.611	0.285	5.008
대학교육	-	-	-	2.020	0.283	7.541
대졸 이상	-	-	-	3.661	0.283	38.911
u2	8.365	0.296	-	7.612	0.2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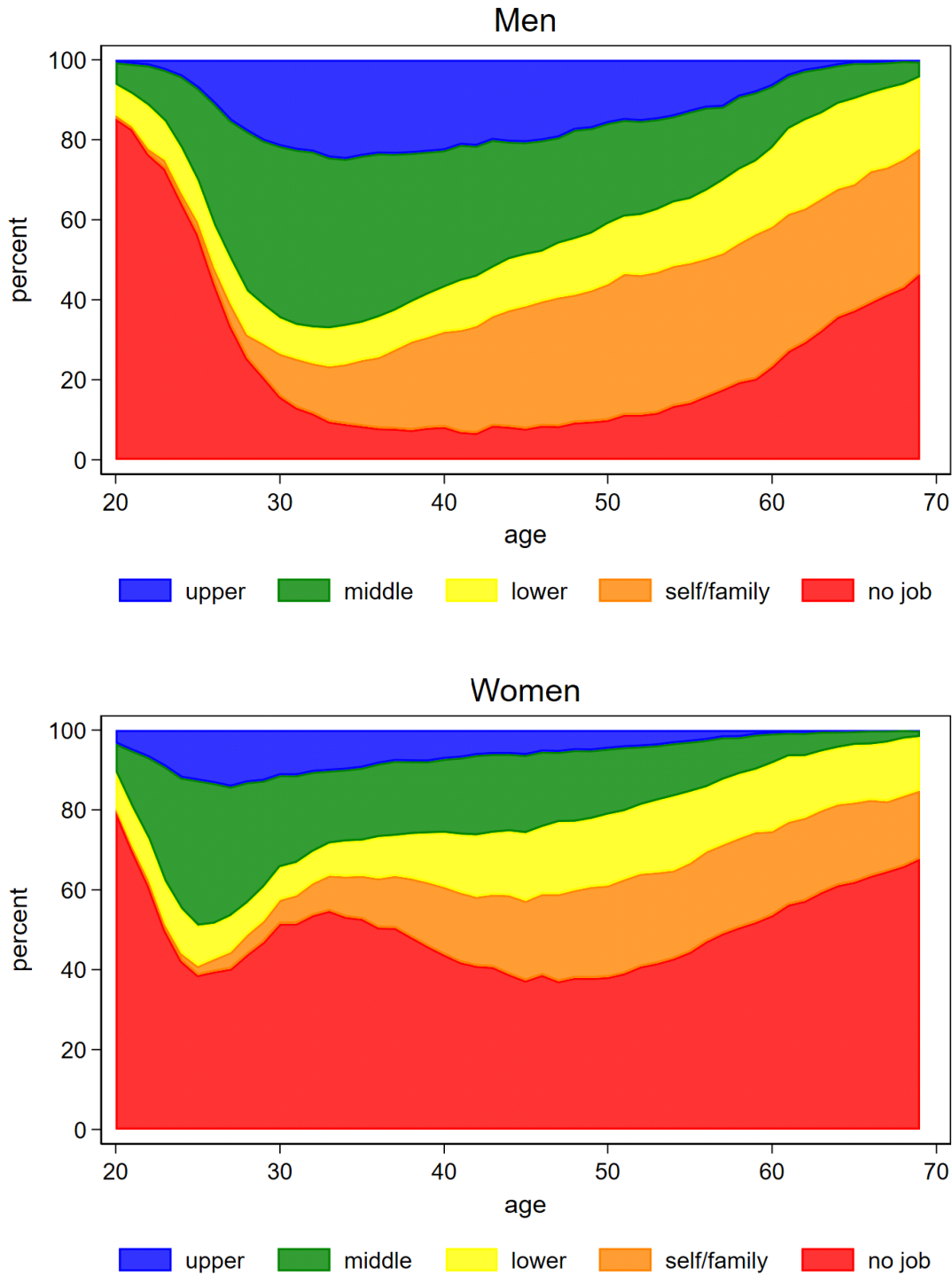
사례수 = 24,497 (4,091 명)

&lt;표 11&gt; 연령대별 코호트 비교 (20-30대), 확률효과 순서로짓 모형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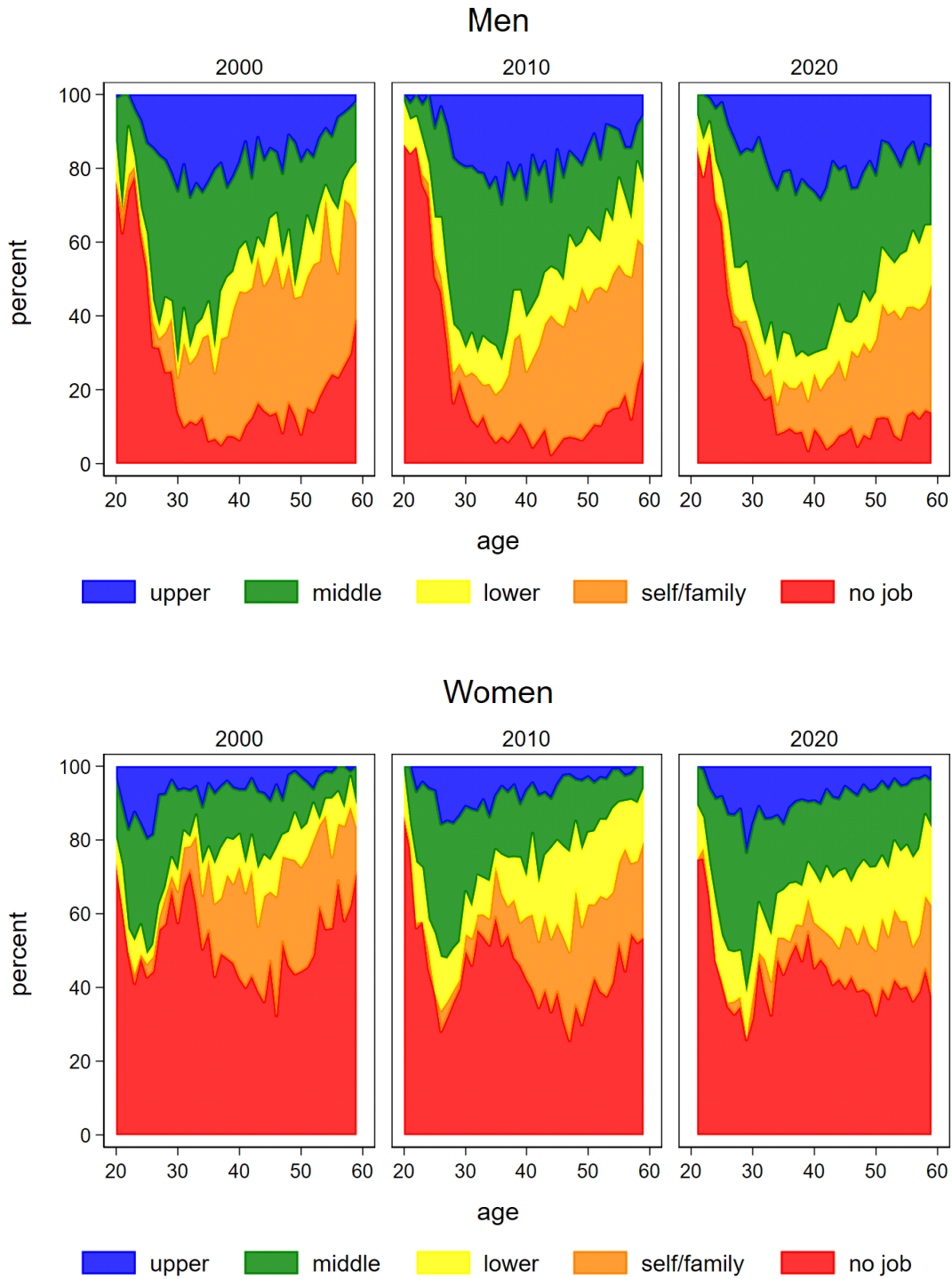
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연령	0.381	0.049	1.464	0.278	0.050	1.321
연령 제곱	-0.007	0.001	0.993	-0.005	0.001	0.995
출생코호트						
1970-79	-	-	-	-	-	-
1980-89	-0.154	0.102	0.857	-0.269	0.102	0.764
교육수준						
고졸 미만	-	-	-	-	-	-
고졸	-	-	-	1.876	0.381	6.524
대학교육	-	-	-	1.908	0.378	6.740
대졸 이상	-	-	-	2.983	0.378	19.755
u2	6.847	0.280	-	6.658	0.275	-

사례수 = 17,476(3,391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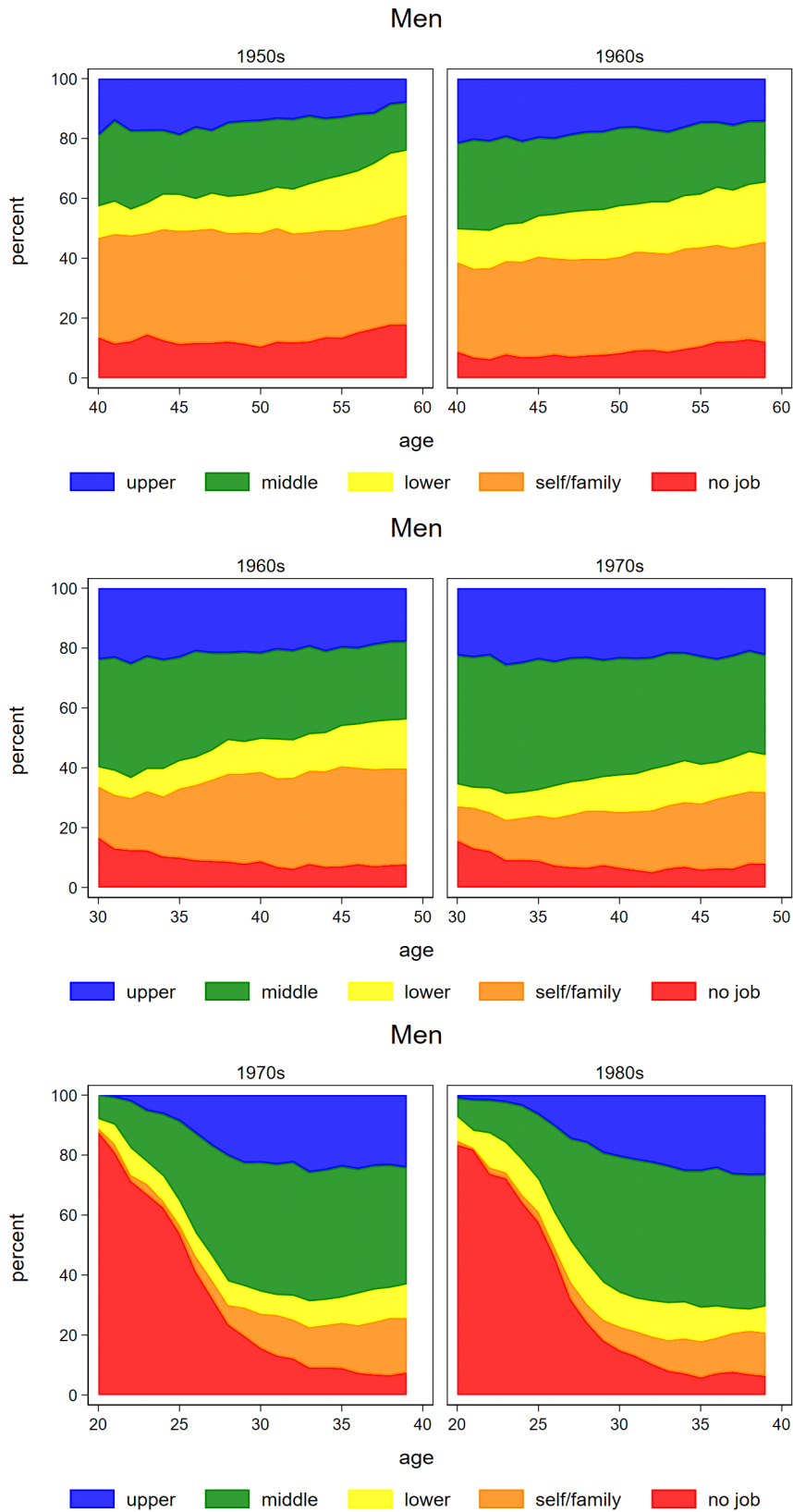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1998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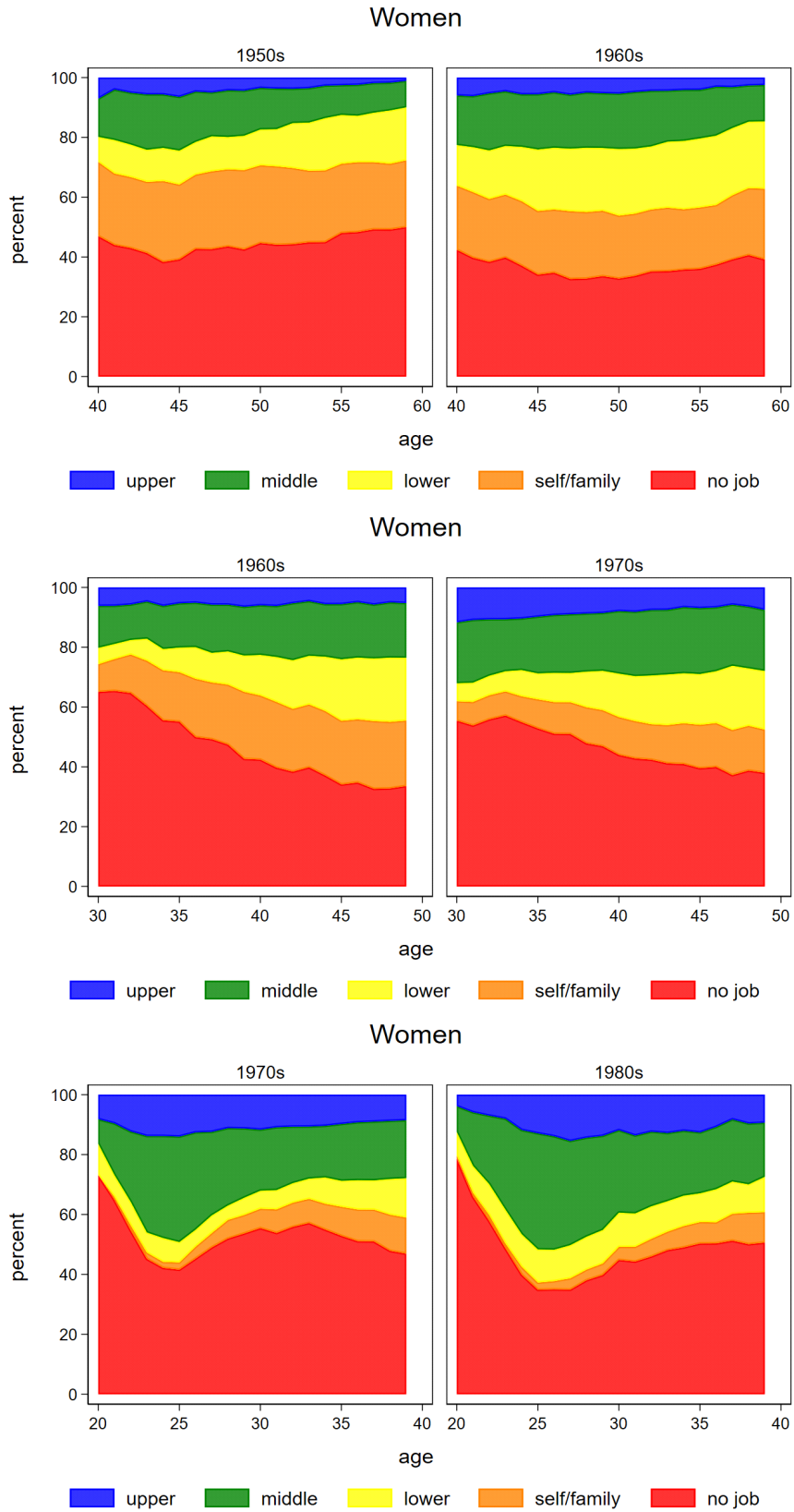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의 변화 (2000, 2010, 2020)



[그림 3]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출생코호트 비교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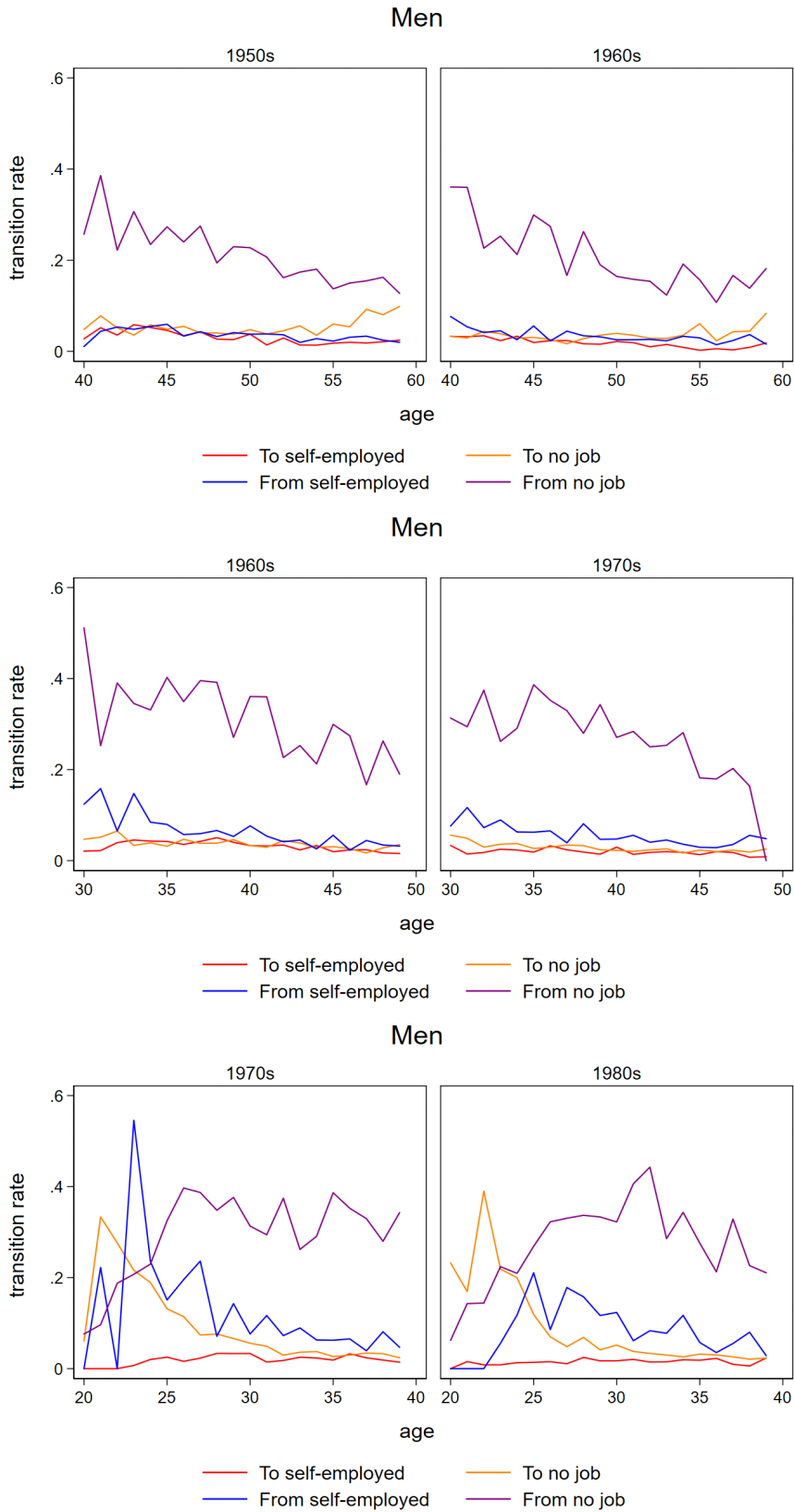


[그림 4] 연령별 결합노동시장 지위 분포 출생코호트 비교 (여성)





[그림 5] 연령별 이행률 출생코호트 비교 (남성)



[그림 6] 연령별 이행률 출생코호트 비교 (여성)

